

찬 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부모님을 따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순종할래요.

떼쓰거나 삐치지 않고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쁜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Q1.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동안 내 마음대로 지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었나요?

Q2.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장난감 정리하자!", "치카치카하고 손 씻자!" 라고 하실 때,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기쁘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3.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제일 잘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사랑 하기, 감사하기, 정리하기 등)은 무엇인가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2026년 9월 셋째 주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충일이는 어제 키즈카페에서 더 놀고 싶었지만, 엄마가 "이제 집에 가자~" 하셨을 때 떼쓰지 않고 꼭 참고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왔대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한 충일이, 정말 대단하죠?

오늘 성경 이야기 속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쁜 집,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성전의 길이와 넓이, 높이도 내가 알려준 대로 만들고, 방과 나무 재료 하나까지 내가 정해준 방법대로만 들어야 한단다."

솔로몬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했고 커다란 건물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마음을 모은 솔로몬의 예쁜 순종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다 같이

말씀봉독 열왕기상 6장 12절 다 같이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요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공동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양과 말씀나눔과 공동기도문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